

기고



임 동 현 영암소방서 서장

올바른 대피와 비상구의 중요성

4월 10일 오후 남양주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 날은 주말로 1층과 2층 상가는 생필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로 붐볐고, 3층부터 18층까지의 주민들은 모처럼 맞이하는 주말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대되며 대형화재로 이어졌고,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인명피해는 단순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상자 41명 뿐

이었다. 이렇듯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대피요령과 비상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피 당시 유독 가스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화재 소식을 듣고 재빨리 대피한 주민들의 행동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던 방법이었다. 또한 비상구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정상적으로 발휘하며 주민들이 옥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피 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자부한다.

비상구는 평소에는 출입문이지만 비상시에는 이렇듯 '생명의 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필요성과 소중함은 수많은 재난환경에서 검증되었다. 우리 소방서는 비상구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불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해당행위 발견시 신고한다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제재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물인만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비상구를 확인 및 점검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곳이 있다면,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할 것이다.

기고

산불화재,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확산에도 생명의 계절인 봄이 다시 한번 우리곁에 찾아왔다. 봄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건조해진 날씨와 산림 인근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통계로 보면 매년 봄철 전국적으로 평균 400~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가 순위를 다투 화재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계절적 특성상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과 강풍에 의한 급격한 산불의 확산은 그 위험성을 더욱 높게 한다. 이로 인해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예방과 실천방법은 간단하다. 산림 인근의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입산객들은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간단한 예방과 노력만으로도 산불화재는 예방할 수 있다. 산불화재를 서두에는 실화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상 산불화재의 원인은 실화 일 수 없다. 화재가 날 거라는 걸 알고도 산림 주변에서의 불 태우기, 흡연, 취사는 엄연한 방화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잠정적 방화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이다. 백기옥/영암소방서현장지휘단소방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사 화재예방은 시설물 안전부터

지난 겨울철 내내 추위로 인한 전열기 사용 증가와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 등으로 전국 곳곳의 축사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축사화재가 피해가 큰 것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연소하는 볏짚, 보온재 등으로 가연물이 많고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축사도 많아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사에 대한 화재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축사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

한 건의 화재로 축산 농가는 많은 재산피해를 떠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축사화재를 예방하는 일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축산농가의 안전의식이다. 초기에 축사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화재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축사화재에 대비해 긴급 연락망을 숙지하고 가족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축사화재의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시설의 재정비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사 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축산농가가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시 전력공사에 신고해 반드시 승압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사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기구 등 난방시설 사용 시 규격전선을 사용하며, 보온공급 및 공기순환 환풍팬 설비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과부하, 누전 스파크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로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며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된 콘센트 및 전기시설을 교체하며,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축사 내 배선 및 환풍기, 분전함 내 먼지 제거 등 청결유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축사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이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 하므로 축산농가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사 구석진 곳부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축사시설물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축사화재는 분명 한 인재이다. 그것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용선/담양소방서곡성119구조대장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address detail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